

라틴아메리카 한국어 교육의 현주소 - 멕시코 사례를 중심으로

정상혜

2007년 7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UCLA)에서 ‘제1회 미주지역 한국학 학술회’가 개최되었을 때, 한국어나 한국학 강의가 개설된 라틴아메리카 4개국(멕시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의 교육자들이 참석했다.¹⁾ 그 때는 한국어나 한국학 수강생이 대부분 20명 남짓해서 멕시코 국립대학교 외국어연수원(CELE: Centro de enseñanza de lenguas extranjeras)의 한국어 수강생 100명 이상이라고 얘기하자 모두들 놀라워했다. 한국어나 한국학 교육을 받는 학생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라틴아메리카에서는 한국어나 한국학을 교육하는 대학이 많이 늘어났다. 과테말라, 페루, 콜롬비아에 한국어 교육과정이 개설되었고, 2012년 10월부터는 쿠바의 아바나대학교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미 60여 년 전에 개원한 멕시코국립대학교의 외국어연수원은 역사로 보거나 규모로 보더라도 라틴아메리카의 외국어교육원 중에서 최고를 자랑한다. 이러한 연수원에서 내가 처음으로 한국어 강의를 시작한 때는 1994년이였다. 그 이전에도 한국어 과정이 있었지만 한국정부의 지원이

1) 당시 라틴아메리카에서 참가한 대학은 다음과 같다. 아르헨티나의 코르도바 국립대학교(Universidad Nacional de Córdoba),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Universidad de Buenos Aires), 라플라타국립대학교(Universidad Nacional de la Plata), 브라질의 상파울로대학교(Universidade de São Paulo), 마켄지장로교대학교(Universidade Presbiteriana Mackenzie), 브라질리아대학교(Universidade de Brasília-UnB), 칠레의 칠레가톨릭대학교(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 Chile), 디에고포르탈레스대학교(Universidad Diego Portales), 칠레대학교(Universidad de Chile), 멕시코의 멕시코대학원(Colegio de México), 멕시코 국립대학교(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이다.



제1회 미주지역 한국학 학술대회(2007년)

있을 때에만 개설되었다가 지원이 끊기면 곧바로 폐지되곤 했다. 외국어 연수원에서 주는 수당이라고 해야 멕시코 최저임금 수준인데, 그런 박봉을 받아가며 한국어 강좌를 지속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중국어와 일본어 과정은 무려 50년 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권 언어교육은 멕시코 측의 필요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해당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하였다. 이를테면, 중국은 이미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매년 두 명의 중국어 강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일본은 과정 개설 초기부터 지금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얼마 전 한국어교육 연수차 한국을 잠시 다녀왔다. 한국에서 외국인 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많아진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한국의 경제력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전환하면서 한국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현지에서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욕심일지도 모르겠으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때 선심성 공세나



멕시코국립대학교 외국어연수원(CELE: Centro de enseñanza de lenguas extranjeras)

일회적인 행사를 벗어나서 좀 더 진지하고 지속적인 상생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떨쳐버리지는 못했다.

어쨌거나 멕시코의 한국어 교육이 처음부터 관심을 끌었던 것은 아니다. 1994년에는 겨우 15명의 학생이 수강 신청을 했다. 그 후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현재는 135명이 넘는 정도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학기 초에 내가 학생들에게 항상 묻는 말이 있다. 왜 한국어를 듣게 되었느냐? 수강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때는 하나같이 일본어나 중국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수강인원이 초과되어 한국어밖에 들을 게 없었다고 대답했다. ‘뽕 대신에 닭’으로 한국어를 선택했다는 학생들의 솔직한 표현 앞에서 표정을 관리하기가 참 어려웠다. 속으로는 언짢았지만 겉으로 내색하기도 못했다.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큰소리치는 단계가 되었다. 한국어를 쉽게 여기고 공부를 안 할 학생은 미리 그만두라고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게 되었으니, 나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이렇게 한국어강좌 수강생이 증가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있다. 강의실

바깥의 요인으로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정치경제발전이 큰 몫을 했다. 근래 들어서만 한류도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팬클럽에 속해 있는 친구들이 K-pop 아이돌이나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스타에 열광하는 수준 이상은 아니다. 이런 친구들도 한류에 일조하니 한국외교사이드에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만 K-pop 장기자랑 대회에서 한국어 발음이 영 시원찮은 친구들이 그냥 앵무새처럼 흉내만 내는 것으로 볼 때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팬클럽 소속 친구들의 열정을 한국문화에 대한 진지한 관심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한국어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면서 느낀 평소 생각을 이야기해보겠다. 멕시코의 현장 경험하기는 하나,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도 멕시코와 같은 언어권이고 역사와 문화도 유사하므로 큰 차이점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첫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고객 맞춤형 교육이어야 하며, 교포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는 반드시 구별해서 실시해야 한다. 교포 자녀는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든 못하든, 외국인에 비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한 편이다. 그러나 외국인은 관심의 동기에 어떻든 대부분 처음 접하는 생소한 언어이고 문화이므로, 외국인의 모국어와 모국 문화의 맥락을 부단히 참조하면서 교육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자는 굳이 한국인이 아니어도 된다. 한국어를 제대로 배운 외국인이 자신의 한국어 습득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한국어 교육자가 현지 언어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어만 강요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한국어 교육자를 파견할 때 한국인이면 스페인어(또는 파견국가의 언어)를 못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마인드가 아직도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참으로 중요한 요소인데,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멕시코 방송에서 멕시코 주재 한국기업 공장에서 멕시코인 직원을 구타하는 장면이 방송된 적이 있다. 구체적인 내막이야 알 수 없으나 현지인과 접하다보면 일처리 방식이 느리고 답답하게

보일 때도 많고, 한국인에게는 아무 것도 아닌 문제를 현지인은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현지인에게는 별일 아닌데도 한국인에게는 간과하기 어려운 일도 많다. 그런데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든 폭력행사는 용납하기 힘든데, 외국인이 자국민을 함부로 대할 때 감성적인 반응은 더욱 들끓게 된다. 사실 멕시코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한국은 정치적인 혼란과 가난을 이제 막 벗어난 애송이 취급을 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국민일인당소득을 비교해 가며 멕시코보다 더 낮다고 설득하려고 하여도 꿈쩍하지 않는다. 이것이 멕시코인의 자존심과 애국심일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형님 노릇을 하며 살아왔다는 역사적 경험, 외부에서는 ‘테킬라 효과’니 뭐니 하면서 멕시코를 저평가하지만 실제로는 그리 잘 살지도, 그리 못 살지도 않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외국인을 대하는 것이 멕시코인이다. 또 빈부 격차가 심한 나라여서 실제 중산층의 수준을 비교해 볼 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국의 중산층 수준에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유럽 백인의 혈통인 것을 은근히 자랑스러워하는 경향도 있다.

필자가 한국어 교육을 하면서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도 이러한 멕시코인의 사고방식과 무관하지 않다. 여기서 구체적인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리 교육적인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학생들을 지나치게 야단치거나 모욕으로 느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도 폭력행위에 포함된다. 수업을 하다보면 자칫 교육자의 입장에 매몰되기 쉬운데, 항상 학생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가 낯설고 어렵게도 배우고자하는 용기와 열의를 항상 높이 평가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셋째는 정교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다. 요즘 한국어 능력시험(TOPIK)도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불만이다. 같은 외국인이라도 아시아어권에 속하는 중국인 일본인 몽골인은 하나 같이 한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것을 한국 언어교육원에서 직접

목적한 적이 있다. 내 경우도 멕시코에서 스페인어 능력시험을 쳤을 때 어찌나 어려웠던지 그때의 악몽을 잊을 수가 없다. 라틴어에서 파생된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에서 온 친구들은 스페인을 한 번도 배운 적인 없어도 얼마간 노력을 하면 하나같이 스페인어를 잘 알아듣고 구사했다. 우리에게 스페인어가 어렵듯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언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어 교육자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잘 가르쳐 그들이 습득해야 할 쓰기, 말하기, 듣기, 읽기 등의 4가지 능력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려 그들이 한국에서 큰 문제없이 대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런데 한국어능력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학생들의 요구사항도 많아지니 우리 같은 한국어 교육자가 예전처럼 그냥 대충 한국어 가르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대안은 스페인어 사용자들이 좀 더 한국어를 쉽게 이해하고, 아시아어권 한국어 학습자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부단한 연구와 체계적인 한국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멕시코 학생들이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수차례 응시해도 중급을 따지 못한 사정을 이해하고, 특수반을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방안도 강구해볼만하다.

끝으로, 라틴아메리카 한국학은 이제 걸음마 단계이다. 이 정도에 이르는 데도 현지 교육자의 열정과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학 교육이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도약하려면 넘어야 할 장애물도 있는데, 하나는 학생 모집의 어려움이요, 다른 하나는 전문 인력의 부재이다. 학생 모집이 쉽지 않은 주된 이유는 학생들이 한국의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한국에 가겠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일이지만 한국학의 특성상 현지 교육과 유학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효과적이다. 한국에서 제아무리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현지



멕시코 국립대학의 한국 문화 알리기

의 한국학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사적·공적 활동 영역이 현저히 축소되
고, 나아가 우호적인 한국 관련 담론의
추동력도 미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현지의 한국학
교육을 성장시킬 필요가 있는데, 현
재는 동원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희소하다. 외국인 중에 한국학 전문
가가 있기는 하나, 워낙 소수이고
계약 조건이 영세하니 선뜻 강의하
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례는 멕시코에 경우를 두고 하는
예이지만 다른 남미 국가에서도 큰
차이는 없으리라 본다. 이런 장애물

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외교, 통상, 문화, 문학, 어학, 예술 등 다
양한 분야에 걸친 한국학 전문 인력과 라틴아메리카인의 한국학 전문가
양성을 적절히 뒷받침하고 또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을 강
의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스페인어
권 학생들이 한국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친 뒤 한국 전문가가 된 것
을 자랑스러워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적극적인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이 마련되는 날이 어서 오기를 기대한다.

정상혜 - 멕시코 국립대학교 외국어 교육원 한국어과 전임강사